

쓰레기 투기지역에 '향기 나는 정원' 큰 호응



남광주시장 주변 등 '주민참여형' 10곳 조성 청소행정 혁신 모범 사례... 지속적인 확대 추진

동구가 최근 관내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10개소에 '향기 나는 주민참여정원'을 조성,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구는 주민들을 자발적인 '골목정원사'로 선정, '다시 걷고 싶은 동구'를 만들 방침이다.

18일 동구청에 따르면 구는 올해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 동구' 만들기 위해 매년 5% 쓰레기 줄이기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각종 청소행정혁신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공공형 일자리 사업인 '우리동네 청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원룸가 골목, 학교골목, 남광주시장 주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주변, 관광객 방문이 많은 동명동 카페거리 등 상습 쓰레기불법투기지역 10개소를 선정해 주민참여정원을 조성했다.

주민들은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장소가 이웃들의 참여로 새롭게 멋진 정원으로 탈바꿈된 것에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에 동구는 지난 17일 임택 동구청장 구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



동구는 최근 지산동 성당 인근에 '주민참여정원'을 조성, 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동구청 제공

모한 골목의 아름다운 변화를 선보이는 자리를 마련했다.

조성된 주민참여정원은 ▲광주은행 ▲동명동 주민자치회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 ▲대광새마을금고 ▲서석새마을금

고 ▲서석초등학교 ▲살레시오여자고등학교 ▲동명동 행복동거단(보행자가 행복한 동명동 거리 만들기 추진단 모임)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자발적인 '골목정원사'로 선

정,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동구는 앞으로도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위해 청소행정혁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참여 '향기 나는 골목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복현 동명공동체상생협의회장은 "이번에 조성한 주민참여정원은 골목공동체가 함께 참여해 이룬 성과여서 더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주민참여정원'이 쓰레기문제 해결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임택 동구청장은 "변화된 골목골목에서 깨끗한 동구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청소혁신 사업들이 성과를 내고 있어 기쁘다"면서 "다시 찾고 싶고 걷고 싶은 동구 거리를 만들기 위해 주민들과 지혜를 모아가겠다"고 말했다. /김종찬 기자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 실시

동구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 2,160여명을 대상으로 '민원서류 무료 배달제'를 실시한다.

이 제도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를 전화로 신청 받아 주소지까지 배달해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다.

동구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취약한 장애인(1-3급)을 대상으로 지난달 29일부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상서류는 본인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사무 20종, 본인 확인이 불필요한 토지대장 등 민원 사무 8종 등 총 28종이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20종의 민원서류 발급은 주소지와 배달지가 같은 경우에 한해서만 접수가 가능하고, 서류 전달시 본인확인 절차를 철저히 이행해 전달할 예정이다.

계림꿈나무 도서관 재개관

동구는 최근 '계림꿈나무도서관'의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했다고 18일 밝혔다.

계림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 위치한 계림꿈나무도서관은 새 단장을 마치고 문을 열었다. 도서관은 시설 노후화, 자료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5개월 동안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계림꿈나무도서관은 서고를 포함해 노후시설 교체, 이용자 편의 증진을 위한 공간 재배치, 도서관 기능을 갖춘 추가 공간으로 조성됐다.

특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책 놀이터'와 '이야기방'을 비롯해 기존 일반자료실은 노트북 존 등 열람서가 공간을 재배치하며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였다.

치매환자 힐링 문화체험

동구는 최근 치매환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도란도란 힐링' 문화체험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도란도란 힐링' 문화체험은 치매환자와 가족들에게 새로운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 휴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날 문화체험은 광주영상박물관에서 한국영화 '아이 캔 스피크'를 관람한 뒤 각자 소감을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치매환자에게는 새로운 경험으로 인지 자극을 유도하고, 치매가족 간 정보교류 및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동구치매안심센터(608-3490-8)로 하면 된다.

"광주주먹밥 먹고 힘내세요"

저소득·노인·1인가구 등 전달

동구는 지난 17일 코로나19 취약계층을 위한 '광주주먹밥'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시 음식문화개선 중점사업' 일환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광주 대표 음식으로 선정된 '광주주먹밥'의 맛과 의미를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가구, 1인가구, 장애인 등 돌봄 계층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이날 동구장애인복지관 이용자 260명을 비롯해 13개 동 취약계층 등 모두 1,300여명에게 '광주주먹밥' 도시락과 위생마스크, 마스크 등의 방역물품을

전달했다.

이번 도시락은 광주시 지정 주먹밥업체인 '맘스룩' (대표 김현경)과 '밥콘서트' (대표 권영덕)에서 제작됐다.

'맘스룩'은 지난해 광주 요리경연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한 '묵은지불고기찜주먹밥'을, '밥콘서트'는 주먹밥2종과 상추튀김으로 구성된 '5180주먹밥세트'를 주요메뉴로 내세워 주먹밥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행사는 관내 주먹밥 업체인 '맘스룩'에서 임택 동구청장, 정미용 동구의회 의장을 비롯해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주먹밥 만들기에 참여하고 만든 도시락을 장애인복지관에 전달했다.



동구는 최근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로 새롭게 출범시켰다. /동구청 제공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성료

'일회용 방역고글' 광주시장상 수상

동구는 최근 '제2회 동구청장배 전국 청년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동구창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고등학교생부터 대학생, 청년 스타트업 등이 출전한 가운데 생활 속 특목 튀는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제품들 선보였다.

이들 중 대상은 박세은 청년스타트업(바이러스가 못 파 '고글') 대표의 'COVID-19 비말 및 에어로졸 방지 세계 최초 일회용 방역고글'이 차지했으며 광주시장상과 부상으로 100만원의 시상금이 주어졌다.

이와 함께 ▲최우수상 'C.E.O' (블록코딩을 활용한 과학실험 및 교육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특별상 '소송몬스터' (국내 최초 커뮤니티 기반 참여형 온라인 집단소송 중개 플랫폼) 등 8개 팀이 상상의 영예를 안고 총 32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다.

앞서 동구는 지난달 28일까지 '포스트 코로나, 한국판뉴딜을 선도할 광주형 창업아이디어를 찾아라'라는 주제로 참가 신청을 받았으며 경기, 경북, 전남 등 전국 36개 팀이 참여했다.

최종심사는 전문심사위원들의 심사와 청년 청중평가단이 참여한 온라인 투표 결과와 합산해 결정됐다.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 '주민자치회' 출범

산수1·동명·충장·지산2동 마을자치 플랫폼 구축

동구는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출범하기로 했다.

18일 동구청에 따르면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각과 요구를 하나로 모아 논의하고 집행하는 주민대표기구다.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동 행정업무의 자문기구에 그쳤다면 주민자치회는 실질적인 주민대표기구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된다.

특히 기존에는 지역유지들이 중심이 돼 공개모집 방식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지만, 앞으로는 조례에 의한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해 모집하고 의무적으

로 사전교육 6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현재 동구 13개 동 가운데 주민자치회가 출범한 곳은 산수1동, 동명동, 지산2동, 충장동 등 4개동이다. 이중 산수1동은 가장 먼저 '광주다운 주민자치센터' 시범동으로 선정돼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2017년 7월 주민자치회가 출범했다.

산수1동 주민자치회는 지난 4년간 30여 명의 위원을 주축으로 ▲주민소통을 위한 '빛고을 산수터임스' 제작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집수리·반찬나눔·안심벨 설치사업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을 위한 마을 대청소 및 캠페인 전개 등 마을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올해 6월에는 동명동, 지산2동, 충장동이 주민자치회를 출범하고 최근 2차례 운영방안 워크숍을 개최했다. 3개동은 성공적인 주민자치회 정착을 위해 워크숍 이후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마을자치계획을 수립하는 등 마을자치 플랫폼 구축에 나서고 있다.

박헌조 산수1동 주민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출범을 전후해 가장 많이 바뀐 점은 위원들의 '참여 의지'였다"면서 "그동안 시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다년간 시행착오를 거치다보니 주민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발굴사업들이 좋은 성과를 거둬 동 주민들의 만족도 역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김종찬 기자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에서 사업 파트너를 찾습니다

"개발 사업 부지를 확보하고 계신 분"
"개발 사업 부지를 증계하고자 하시는 분"
"소유하고 계신 부지의 개발 파트너를 찾는 분"

성공을 위해 함께하는 골드클래스가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골드클래스(주)
보광종합건설(주)

- 문의 : 062) 233-3999 (내선 500, 503) 010-3637-3735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99번길 6 (화정동)